

2019년 10월 12일(토)

24장 - 왕 되신 주

- (1)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 (2)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 (3)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623장 - 주님의 시간에

- (1) 주님의(주님의) 시간에(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살리라)
- (2) 주님의(주님의) 시간에(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주소서)

10월 14일(월) 기도 담당 : 신승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4장	다같이
기도	양용식 집사
성경봉독 에스겔 45장 9~12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공정한 저울”	윤지옥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623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겔45:9~12 >

- 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나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쓰지니
- 11)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 12) 세겔은 이십 게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오 세겔과 십오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 참고의 말씀 < 잠11:1 >

* 잠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0월 12일(토)

하나님!

토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른아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의 공정(公正)과 공의(公義)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합니다.
나라의 저울이 공정하지 않고, 통치자의 저울이 공정하지 않을 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않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저울은 어떠한지요?

진실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무쌍(變化無雙)하게 달라지는 저울이 아니라,
그 어떠한 때와 장소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저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 10인 선출을 위한 2차 공동의회(13일)를 통해 신실한 주의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가을부흥사경회(14~16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새 생명 기쁨나눔주일(20일) 귀빈 초청을 통해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올해에는 꼭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197회 서울(가을)노회(24일)를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섬겨서 성회(聖會)가 되게 하시며
안수집사·권사 임직예식(27일)을 통해 임직자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금(昨今)의 혼란하고 불안한 시국(時局)을 타개(打開)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시급(時急)한 경제와 민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체사상과 김정은 우상화에 예속(隸屬)되어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탄식하고 있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감사로 매듭짓고, 주일성수를 준비하며, 새 한 주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